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
문의	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 변영현, 전화: 880-5790, 이메일: alley711@snu.ac.kr

배포일: 2022.6.22.(수)

서희건설, 서울대학교 인문학 기금 1억여원 쾌척

- 국내 대표 중견건설기업인 서희건설(회장 이봉관)이 우수한 신진 인문학자를 지원하는 서울대학교 ‘서희건설 인문학 펠로우’ 기금 1억1,200만원을 쾌척했다. 서희건설은 이외에도 경영대 기금 5,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.
- 서울대는 6월 21일(화)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, 이석재 인문대 학장, 한일규 (재)발전기금 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.
- 이봉관 회장은 “서울대는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주체로 한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” 며 “젊은 인재들이 청년의 때에 자신에게 처한 일상적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고 매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고, 나아가 이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이룩해나가길 소망한다” 고 말했다.
- 오세정 총장은 “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” 며 “공익에 이바지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기업의

경영이념처럼 인문대학이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” 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.

- 이석재 인문대학장은 “인문학 분야에서 포스닥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희건설 인문학펠로우 사업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” 며 “서희건설 인문학펠로우 기금을 지원받은 신진학자들은 뛰어난 연구력을 바탕으로 해당 학계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인문대학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”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 - 서희건설은 1994년 운수업에서 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이후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. 특히 2008년 지역주택사업을 시작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했으며, 현재 총수주액이 약 10조 원에 달해 업계 최대 규모이다. 서희건설은 전국 70여 개 이상의 단지, 7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성사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.
 - 이 회장은 평소 ‘기업은 사회 공익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’ 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,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운영, 소년소녀가장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로템나무 장학금 지원, 코로나19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.
- 사진촬영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이봉관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